

현세와 내세

시편 73:24,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현세와 내세의 삶을 요약하여 말한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도 그러하다.

현세(현재의 삶)

성도들의 현세 곧 현재의 삶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으로 요약된다. 현세는 나그네의 삶과 같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은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라고 말했다(15절).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즉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며 그 교훈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뜻이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 성도가 삶의 규칙으로 받는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다.

모세는 신명기 10장에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나?”라고 말하였다(12-13절).

시편 73편의 저자는 오늘 본문의 앞뒤 절들에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
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
하였다(시 73:23, 25-28).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았다.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렸던 솔로몬은 세상의 헛됨을 증거
한 후 전도서 12장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말했다(13절).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고 있다.
성도들도 때때로 믿음이 부족하여 비슷한 염려를 가지고 산다. 그것
들 중 대표적인 두 가지는 경제의 염려와 건강의 염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 교훈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의 계명
을 순종하며 사는 성도는 그런 염려를 버려야 하고 버릴 수 있다.

성도들은 경제의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도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시편 37편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증거했다(25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께서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31-33
절). 우리는 경제의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한다.

성도들은 또한 건강의 염려도 하지 말아야 한다. 다윗은 시편 23편
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
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

위하시나이다”라고 말했다(4절). 그는 세상이 질병과 위협과 죽음의 골짜기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심을 믿었던 것이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 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26절).

잠언 3장에는 건강에 관한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 “스스로 지혜 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리프우스 תַּרְפּוּן)[건강(KJV, NIV), 치료(BDB, NASB)] 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7-8절).

내세(미래의 삶)

오늘 본문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고 말한다. 성도의 현재의 삶이 주의 교훈으로 인도 함을 받는다고 요약된다면 성도의 내세 곧 미래의 삶은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고 요약된다. 누가 성도들을 어디로 영접하는 것인가? 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영접하시는 것이다.

인생은 나그네이며 세상은 그들의 본향이 아니다. 인생은 왔다가 간다. 70년, 80년 살다가 하나씩 둘씩 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은 천국이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은 채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보인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창 5:24).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말한다(5절).

선지자 엘리야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산 채로 하늘로 올라갔다.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와 그의 수종자 엘리사가 걸어가며 말하는데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의 간격을 떨어지게 했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증거한다(11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사도행전 1장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증거한다(9절).

주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다시 오실 것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14:1-3).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곧 복된 천국을 주실 것을 말씀하였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1-4절).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210103전. 현세와 내세 (시 73:24)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4:16-5:1).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불타버리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3:10-13).

말씀을 맺는다. 오늘 본문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고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현세와 내세를 요약한다.

첫째로, 우리는 현세에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의 계명들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특히 그의 약속을 믿고 경제도 염려치 말고 건강도 염려치 말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천국으로 영접하실 것을 믿고 소망해야 한다. 또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하여 영광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천국을 소망하며 사모해야 한다. 천국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영광의 나라이다.